

규방 공간에서의 문학 창작과 향유

백 순철*

1. 머리말
2. 규방 공간의 문화적 의미
 - 1) 문자성과 음성성의 경계 : 교양 습득을 통한 여성 자의식의 출발 지점
 - 2) 다양한 여성의식의 포괄 공간
3. 외부세계와의 교류 : 독서와 여행
4. 맺음말

* 고려대 국어교육과 강사

국문초록

이 논문은 규방이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여성들이 문학을 향유하는 실상과 그 문화적 의미를 살피는 데에 주요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학문이나 교육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여성들이 어떤 방식으로 한문 및 국문 해독능력을 갖추어 가는지, 그 속에서 스스로 어떻게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지를 먼저 살펴보았다. 혼인 전의 여성들은 교양 습득에 있어서 문자적 제약이 강한 경우에는 기억과 재현의 능력이 요구되는 구비성을 한층 강화시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간다. 또한 여성들끼리는 국문의 전사를 통해 여성 간의 교양 확대를 추구한다. 여성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문 및 국문 능력을 체득해 나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렇게 문학능력을 체득한 여성들은 자신들의 다양한 삶의 체험과 의식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하게 된다. 특히 국문장편소설 및 규방가사는 이러한 여성들의 생활세계와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내면의식을 잘 담아내고 있다. 여기서는 규방가사를 중심으로 여성들이 자신들의 삶을 어떻게 규정하고 표현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규방의 여성들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규방 외부의 기반으로서 독서문화와 여행체험을 살펴보았다. 여성의 독서문화를 살펴보면 흥미와 쾌락에 대한 욕망, 사람살이에 대한 성찰, 자기표현의 욕망 등을 들여다 볼 수 있다. 또한 여성들의 여행체험은 새로운 세계에 대한 인식, 심미적 욕망의 충족 등을 통해 여성들의 언어 및 정서적 미감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우리가 여성들의 문화적 기반을 먼저 살펴보는 이유는 이것이 능동적인 문학 창작을 가능케 하는 바탕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전통시대 여성들은 규방공간에서 제약된 삶을 살았지만 그러한 한계를 나름대로 돌파하며 자기들만의 독자적인 문학능력 및 문학문화를 형성, 발전시켜 왔음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핵심어 : 규방, 규방가사, 문자성, 독서문화, 여성의식, 여행체험, 음성성

1. 머리말

고전여성문학의 주체인 여성은 흔히 왕실을 중심으로 하는 궁중 여성(왕비와 후궁, 궁녀, 비자 등), 규방을 중심으로 하는 양반 여성, 기방을 중심으로 하는 妓女, 그리고 서민 계급의 여성으로 대별된다. 따라서 고전여성문학의 창작 기반과 소통 양상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그 주체인 여성의 계급과 사회적 처지의 문제는 논의의 전제로서 늘 요청되는 부분이다. 이들 여성들은 특수 직업층인 妓女를 제외하고는 모두 남성들의 제도권 문화에 편입되지 못하고 배제된 채 그녀들만의 공간에서 여성 고유의 체험과 인식을 경험하게 된다. 이중 특히 규방의 여성들은 남성의 전유물인 문학 양식들을 향유하면서 이를 주체적으로 변용하여 우리 문학사를 풍성하게 한 존재로서 그 존재감이 남다르다. 규방의 **문학**을 연구하는 데에 있어서 항상 그녀들을 집단화시켜 이해하는 것도 이러한 암묵적 전제에 기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고는 규방이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여성들이 **문학**을 향유하는 실상과 그 문화적 의미를 살피는 데에 주요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우선 '달헌' 공간인 규방에서 여성들 스스로 어떻게 교양과 문예능력을 획득해 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학문이나 교육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여성들이 문학 능력을 획득해 가는 기반에 대한 검토에 해당한다. 즉 여성들이 어떤 방식으로 한문 및 국문 해득능력을 갖추어 가는지, 그 속에서 스스로 어떻게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규방의 여성들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는 규방 저 너머 외부세계와의 교류 또한 무시할 수 없다. 그녀들이 그러한 체험들을 통해 어떠한 의식과 태도를 보여주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이처럼 여성들의 문화적 기반을 먼저 살펴보는 이유는 이것이 능동적인 문학 **창작**을 가능케 하는 바탕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여성문학의 특징에 대한 기왕의 연구에서 노출된 문제는 범박하게 말해서 남성들에 의해 주어진 것, 또는 남성들에 의해 강요된 것 속에서 여성들의 수동적이고 몰주체적인 모습이 필요 이상 많이 강조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상의 작업을 통해 전통시대 규방의 여성들이 문학을 향유하는 양상과 그 문화적 기반에 대한 보다 온전한 이해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2. 규방 공간의 문화적 의미

1) 문자성과 음성성의 경계 : 교양 습득을 통한 여성 자의식의 출발 지점

전통적으로 문학사에서 이해하는 규방 공간의 성격은 규방소설의 성립 과정을 밝힌 임형택의 논의¹⁾, 규방가사의 형성과 특징을 밝힌 권영철의 논의²⁾, 安東權氏家를 중심으로 한 장편가문소설의 향유 실상을 밝힌 박영

1) 여성은 지식의 문으로 들어서지 마지 곧 여성으로 태어난 그 자체를 불행으로 통감하는 것이다. / 여기서 우리는 여성이 깨우침을 얻는 만큼 갈등이 커지는 사실을 엿볼 수 있다. …… 지식의 추구는 금방 벽에 부딪히는데 거기서 갈등을 느낀 여성들이 그 갈등을 타개하기 위한 어떤 실천을 감행할 수 있었을까? 그러자면 閨房으로부터 탈출해야 하고 자신과 자기 가문에 무한한 특혜와 영광을 끼쳐준 제도를 거부하고 타도하기 위한 싸움을 전개하지 않고는 안된다. 말하자면 여성해방을 위한 싸움의 출발은 자기자신을 깨뜨리고 자기를 안보하고 있는 가문을 거부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실로 지난한 싸움인데, 현실적으로는 그럴 만한 마음의 자세도, 그럴만한 조건도 아직 조성되지 않은 상태이다. 문제의 실마리가 여기 있으니, 상호모순되는 측면을 주목해야 한다. / 하나는 여성을 윤리적으로 단속해야 한다는 측면이다. … / 다른 하나는 여성들을 다소간 풀어 주어야 하는 측면이다. …/ 여성을 규방 속에 속박해 놓고서 살짝 늦꾸어 주어야 하는 모순의 타협점에서 출현한 것이 규방소설이다.(임형택, 「17世紀 閨房小說의 成立과 〈倡善感義錄〉」, 『동방학지』 57, 연세대 국학연구원, 1988.3. / 『고소설 연구 1』, 국문학연구총서 5, 태학사, 1997, pp.299~300).

희의 논의³⁾ 등을 통해 대체적인 설명이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규방 여성들의 소설문화나 가사문화의 전통과 그 문화적 기반에 대한 논의는 대개 위의 연구들에 크게 힘입은 바 크다.

다만 이들 연구에서 이해하는 ‘규방’ 공간의 성격은 가부장제의 모순 속에서 여성을 억압하는 공간, 여성적 삶의 애환이 가득한 공간으로서의 의미가 강하게 느껴진다. 이는 부녀자가 거처하는 방에 대한 우리의 보편적 이해로 그대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는 다분히 문제적이다. 즉 이러한 시각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규방 여성들을 몰주체적인 존재로 이해하게 되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 물론 전통시대 여성들의 삶이란 것이 남성에게 비해 자유롭지 못하고 그 행동 또한 상당히 제약된 특징을 가지는 것은 분명하다. 다만 그러한 삶 속에서 여성들이 마치 감옥 안에 유폐된 죄인처럼 스스로를 포기하고 철저히 타자적 존재로서 살았을까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여성들의 삶이란 것은 혼인을 전후로 하여 삶의 양상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규방 여성들이 혼인을 전후로 하여 교양을 습득해 가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여성들의 문화생활이 어떠한 기반 위에서 형성되는지, 이를 통해 여성들에게 규방이라는 공간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다시금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는 특히 문자성과 음성성⁴⁾의 상보적 관계 속에서 교양을 터득해 가는 여성들의 문화에 주목하려 한다.

① 총명함이 일반 사람보다 넘어 여자의 일로 길쌈하는 일이야 한번 보면

2) 권영철, 『규방가사연구』(이우출판사, 1980).

3) 박영희, 「장편가문소설의 향유집단 연구」, 한국고전문학회 편, 『문학과 사회집단』(집문당, 1995).

4) 여기서는 문자 언어에 의해 이루어지는 언어 활동의 제반특성을 문자성으로, 음성 언어에 의해 이루어지는 언어활동의 제반특성을 음성성으로 부르코자 한다. 문자언어와 음성언어의 일반적인 차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개관할 수 있다. 노대규, 『한국어의 입말과 글말』(국학자료원, 1996), pp.36~38.

바로 능통하여 정밀하고 오묘하지 않은 것이 없었으며, 문자(文字)를 들어 귀에만 지나가도 곧바로 잊지 않았었다. 외할아버지 도정공께서 시험삼아 『사기(史記)』의 항우전을 가르쳐 주자 곧바로 모두를 외워버렸다. 도정공은 기특히 여기고 칭찬하시기를, “열 사내아이보다 낫구나.”라고 하셨다. 이때로부터 『소학』이나 『열녀전』과 같은 책들은 전체를 읽어보지 않은 것이 없었다. 성품이 또 밝고 통달하여 의리(義理)에 밝았으니 여자들이 부처 부러워하며 집안에서는 ‘규수(閨秀)’라고 불렀었다.⁵⁾

② 경당선생에게는 유일한 딸이어서 기특하게 사랑하여 『소학(小學)』과 『십구사략(十九史略)』을 가르쳐 주니 힘들이지 않고도 글의 의미를 통하였다.⁶⁾

③ 어머님은 우리 집으로 시집 오시기 전에 여러 형제들이 독서하는 것을 익숙히 듣고, 경전(經傳)의 큰 뜻은 통달하였다.⁷⁾

기준	음성언어	문자언어
전달의 수단	다양성	단순성
표현의 시간적 여유	즉각성	순간성
친교성과 제보성의 우열	거의 동등	제보성 우세
표현성과 서술성의 우열	모두 즉시	서술성 우세
발신자와 수신자의 관계	동시 공존	분리
의미론적, 통어론적 관계	구체성	추상성
시·공간적 제약	순간성	영구성
언어 변화의 속도	진보성과 동태성	보수성과 정태성
의미의 존재	모호성	명료성
구성적 특성	비논리성	논리성
사회적 성격	비격식성	격식성
의미 해석의 준거	컨텍스트 의존성	텍스트 의존성

- 5) <한차례 뵈고서 이별하기를 원하오니(孺人公州李氏遺事)>-정렬부인 공주 이씨(1607~1637), 윤중·박석무 편역 해설, 『나의 어머니, 조선의 어머니』(현대실학사, 1998), p.117.
- 6) <너야말로 배웠던 바를 저버리지 않았구나(先妣贈貞夫人張氏行實記)>-정부인 안동 장씨(1598~1680), 이현일·박석무 편역 해설, 『나의 어머니, 조선의 어머니』(현대실학사, 1998), p.187.
- 7) <여자 처사님(先妣贈貞敬夫人安東權氏墓誌)>-정경부인 안동 권씨(1610~1680),

④ 어머님께서는 글을 배울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때때로 여러 형제들을 따라 지내며 곁에서 그들이 읽거나 외우는 것을 들었었다. 비녀를 꼽기 이전부터 이미 경서(經書) 등을 널리 섭렵하셨다. 상고시대로부터 우리나라 역사에 이르기까지의 잘 다스려졌거나 다스려지지 못한 단서나, 군자(君子)와 소인(小人)들의 나아가고 물러남의 자취에 대해서도 모두 꿰뚫어 알아 빠뜨림이 없었다. 말씀만 꺼내면 너무 뛰어나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지만, 부모님이나 형제들과의 대화가 아니고서는 한 차례도 문자(文字)에 관한 이야기는 꺼낸 적이 없었다. ……어머님께서는 젊은 시절부터 언제나 축목(祝牧)의 해은가(偕隱歌)와 도연명(陶淵明)의 전원으로 돌아가 지은 작품들을 암송하기를 즐겼다. …… 어머님께서는 일마다 대부분 배우지 않으시고도 말하실 수 있었고, 한번 귀에 지나기만 하면 바로 기억해 두시고는 오래도록 잊지 않으셨다. 그러나 스스로는 여자의 본업인 길쌈이나 부엌일 이외에는 대부분 마음을 기울이지 않으셨지만, 다만 산가지 세는 일은 제법 좋아하셨다.⁸⁾

⑤ 나의 외삼촌 교리공(校理公) 조중려(趙重呂)는 젊은 시절에 학문에 힘쓰고 문장 공부에 온갖 노력을 바치느라 밤과 낮으로 끊임없이 책을 읽으셨는데, 어머님은 겨우 7~8세의 나이에 그 분을 따라 곁에 있으면서 글자를 물었다. 그러나 외삼촌은 여자란 문자를 깨우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꾸짖으며 금지시키고 말해 주지 않았는데, 그런데도 몰래 알아차려 암송할 수 있었으니, 집안 사람 모두가 기특하게 여겼다.⁹⁾

⑥ 아버지 참판공은 다른 자녀가 없었고 정해옹주께서도 다른 손자가 없이 오직 우리 어머님 한분뿐이었다. 때문에 옹주께서 몸소 어머님을 안고 길러 주셨다. 입으로 『소학(小學)』의 글을 가르쳐 주셨는데, 어머님은 어려서부터 지

남구만·박석무 편역 해설, 『나의 어머니, 조선의 어머니』(현대실학사, 1998), p.184.

8) <글짓는 것이 부인의 일은 아니다(貞敬夫人行狀)>-정경부인 달성 서씨(1753~1823), 홍석주·박석무 편역 해설, 『나의 어머니, 조선의 어머니』(현대실학사, 1998), p.27, pp.32~33.

9) <남자의 행실은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명예는 후세에 세워진다(先妣行狀)>-정부인 한양 조씨(1609~1669), 오도일·박석무 편역 해설, 『나의 어머니, 조선의 어머니』(현대실학사, 1998), pp.112~113.

해가 있고 총명하셔서 한번만 가르쳐 주면 바로 입으로 따라 하셨으니 옹주께서는 항상, “아깝구나, 여자가 되다니!”라고 하셨다.¹⁰⁾

규방 여성들의 교양은 대체로 혼인 전의 친정에서 습득되기 마련이다. 특히 여성들이 문자와 교양을 터득하는 데에 있어서 가문내의 남성 어른 또는 남성 형제들과의 교류는 매우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그 교류의 방식은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즉 직접적인 문자교육에서부터 귀동냥으로 전해 듣는 것에 이르기까지 층위가 나뉜다. 이 경우 여성의 지적 능력이 주로 강조되는 부분은 주로 음성을 통해 간접적으로 교양을 접하게 되는 경우이다. 위에 인용된 ①~⑥의 기록에는 직접적으로 문자를 접하지 않고 음성으로 전해 듣는 과정을 통해 여성이 교양을 터득하는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 여성의 뛰어난 기억력과 집중력이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여기서 여성들이 주로 접하는 텍스트는 경서와 교훈서 같은 윤리적 텍스트와 역사서로서 문자 독해조차 쉽지 않은 책들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여성들에게 좀처럼 허여되지 않는 텍스트에 대한 여성들의 접근은 표기된 문자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는 소리에 기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의 나이가 어릴수록 그리고 그 교류의 대상이 가문내의 남성인 경우 여성들은 문자성과 음성성의 경계에서 후자 쪽에 쏠린 상태에서 교양을 습득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남성 공간과 변별되는 규방문화의 특징으로서 시각에 의존하는 문자 못지 않게 청각에 의존하는 음성이 여성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음을 말해준다. 여성의 지적 능력이 유난히 강조되는 언술¹¹⁾ 뒤에는 전통적으로 “남아는

10) <과부의 자식이란 말을 빼에 새겨라(先妣貞敬夫人行狀)>-정경부인 해평 윤씨 (1617~1689), 김만중·박석무 편역 해설, 『나의 어머니, 조선의 어머니』(현대실학사, 1998), p.137.

11) “나이 7세에 언문(諺文)을 통하였고 바느질이나 여자의 일을 배워 모든 일에 능통하였다.” <벼슬할 시대가 아니다(先妣淑人墓誌文)>-숙인 해평 윤씨(1558 ~ 1631), 조익·박석무 편역 해설, 『나의 어머니, 조선의 어머니』(현대실학사, 1998).

‘큰일’을 하기 위하여 여성세계와 격리되어 글만 배우고 이들이 읽는 책은 특히 여성이 타 넘으면 안되는 금기의 대상이 된다.”¹²⁾는 봉건적 사회 현실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여성들은 이러한 제한된 문화 환경 속에서 남성과 차별되는 자신의 현실적 처지를 깨닫게 되기도 한다. 다음으로 여성들이 교양을 습득하는 데에 있어서 조모나 고모와 같은 친밀도가 높은 가문내의 여성 어른의 역할에 대해서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여성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형태이다. 주로 집안 내의 나이 든 여성이 나이 어린 여성에게 문자와 교양을 전수하는 방식인데, 그 형태는 주로 국문 傳寫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⑦ 할머니는 여러 손녀들에게도 또한 조금씩이라도 옛날의 교훈들을 알리고 싶어하였다. 제가 전에 반소(班昭)의 『여계(女誡)』를 언문으로 해석해 놓았는데, 할머니는 보시고 아주 기뻐하시면서 손수 한 통을 잘 베껴서 저의 딸 아이에게 주시면서, “너는 의당 이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셨다. 그때 70이 넘은 나이셨으니 가르치고 깨우쳐 주시는 일에 게으르지 않음이 이와 같았다.¹³⁾

⑧ 나는 일찍부터 조모에게 언문을 배웠고, 책 읽기를 즐겨 해서 친구들과 함께 조홍전(조자룡전), 설낭자전, 우민가, 한양가, 임란야화 등 많은 책을 배웠다. “한문 배운 여자는 시집가서 시아버지 머리에 칼자루 박는다”고 하여 소학 등 한문 서적은 하나도 가르치지 않았다. 우리에게는 언문을 열심히 읽혔고,

p.228.

“유년 시절에 경전(經傳)에 통달하여 글을 지을 수 있었으며, 그림 그리고 글씨 쓰는 일도 잘하였다.” <밤마다 달을 향해 기도하오니(先妣行狀)>-사임당 신씨(1504~1551), 이이·박석무 편역 해설, 『나의 어머니, 조선의 어머니』(현대실학사, 1998), p.248.

12) 김진명, 『굴레 속의 韓國女性』(집문당, 1993), p.83.

13) <행실이 없고서야 글을 어디에 쓸 것이냐(祖妣行狀拾遺錄)>-할머니 해평 윤씨 행장 습유록 35조항, 김진규·박석무 편역 해설, 『나의 어머니, 조선의 어머니』(현대실학사, 1998), p.158.

우리는 그때 종이 가 없어서 갑나무에 글을 써서 편지처럼 했다. 어디서 모여 바느질하자고 써서 약속하여 만나 놀곤 하였다. 여자는 규중에 들어앉아 있어야 하고, 밖에 못 나가게 하니까 우리는 몰래 울타리 사이의 구멍으로 빠져다니며 모여 놀곤 하였다. 친구가 다 모이면 열다섯 정도 되고 모여서 글 이야기하고 가사 베끼고 “너 글 왜 그리 쓰냐” 흉도 보고 서로 안 만나면 못사는 줄 알고 살았는데 혼인 후 통 만나볼 수 없었다.¹⁴⁾

⑨ 부절업스 나아히 모음의 벗기고 시버 한마남고 괴로이 간청호와 써주소서 하니 안흔둥(眼昏中) 괴로이 손녀의 듯줄 바다 기묘원월초십일필서(己卯元月初十日筆書) 하시며 네 엇지 칠십 노조모를 네 제비(自婢)갓차 흥는다 하시고 겨우 훈장을 서주시며 조모의 추적(手跡)을 귀히 생각하라 하시니 내 심전갓 앓기고져 하니 조희날바 가히 겨시니 가이업도다¹⁵⁾

위의 인용문들을 보면 화자가 교양을 습득하는 데에 있어서 祖母의 역할이 지대했음을 알 수 있다. ⑦은 행장의 기록, ⑧은 구술생애의 기록, ⑨는 가사의 후기이다. 여기서도 조모와 손녀간에 교육이 국문 傳寫의 형태로 전수되고 있다. 특히 조선후기로 가면서 가사가 여성문학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⑨를 보면 규방 여성들의 가사 애호의 양상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傳寫의 과정을 통한 가사 읽기는 곧 여성들의 국문해독 능력의 고양, 새로운 규범의 체득, 나아가 새로운 작품의 창작이 이루어지는 바탕이 되기도 했을 것이다. 최근 현대 규방가사 작자로서 주목 받는 이휘 여사의 회고에서도 조모께서 학식이 매우 뛰어났다는 점, 고모님으로부터 가사도 배우고 책도 받았다는 언급¹⁶⁾이 있었던 것을 보면, 가문 내에서 대체로 혼인의 경험이 오래되고 가사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14) 편집부 편, 『동서사랑으로 버틴 종부의 삶』, 『또 하나의 문화』 7(1991).

15) <녀승답이라> 필사후기, 류연석, 『海南尹氏宗家所藏 閨房歌辭 研究』, 『고시가연구』 11(한국고시가학회, 2003.2), p.91.

16) 이휘, 「특별강연 : 가사 창작의 현재적 의미」, 한국시가학회 제34차 정기학술발표회 논문집(한국시가학회, 2004.12.4).

처지에 있는 나이든 여성들이 혼인을 앞둔 어린 집안 여성들에게 다양한 경험과 교양을 전수하게 되는 것이 보편적인 교육의 형태로 생각된다. 여기서는 음성보다는 傳寫의 방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는 그 대상 텍스트가 주로 여성들 사이에서 소통되는 여성 교훈서이거나 소설과 가사와 같은 여성 독서물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상을 통해 보면 여성들은 혼인 전의 어린 나이에 가문 내의 남성어른 또는 남성 형제, 여성 어른 및 봉우들과의 교류 등을 통해 교양을 습득해 가는데,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교양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는 여성들이 음성성과 문자성의 경계에 놓여 있는 자신들의 현실적 처지를 어떠한 방식으로 극복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여성들은 교양의 습득에 있어서 문자적 제약이 강한 경우에는 기억과 재현의 능력이 요구되는 구비성을 한층 강화시켜 이를 돌파해 나간다. 또한 여성들끼리는 국문의 傳寫를 통해 적극적으로 전파·전승을 시도함으로써 여성 교양의 확대에 기여한다. 전자에서는 한문 능력의 체득을 통해 남성들의 교양에 필적하는 지적 능력의 성숙을 꿈꾸는 여성의 자의식을, 후자에서는 국문 능력의 확산을 통해 국문을 자신들의 언어로 가꾸고 다듬으려는 여성들의 자의식을 읽을 수 있다.¹⁷⁾

이렇게 혼인 전의 여성들은 다양한 경로로 교양을 습득할 기회를 가지지만 혼인을 하고 나면 이것이 여의치 않게 된다. 혼인 후 여성들의 문학 활동이 대체로 가문 내에서 지위가 어느 정도 확보된 만년에 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결혼은 여성들에게 새로운 자의식을 형성케 하는 계기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교양의 수준을 한층 높이는 데는 가장 큰 장애로 작용

17) 어머님이 바로 편지를 쓰셨는데, 편지의 내용이 너무 아름다워 할아버지께서 보시고는 칭찬하시기를, “이거야말로 언문(諺文) 가운데의 문장이다.”라고 하셨다. <조금만 편안해도 마음에 병이 난다(先妣行狀)>-정부인 덕수 이씨(1609 ~1668), 조지겸·박석무 편역 해설, 『나의 어머니, 조선의 어머니』(현대실학사, 1998), p.122.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여성들은 혼인 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규방의 삶을 자신들의 언어로 드러내고 표현할 수 있었던 셈이며, 이러한 문학적 능력은 이미 혼인 전에 갖추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 다양한 여성의식의 포괄 공간

‘규방’은 여성들의 개인적 취향이나 의지에 의해 벗어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 특히 혼인한 여성들에게 있어서 ‘규방’은 여성의 현실적 처지를 가장 생생하게 자각하게 하는 자의식의 형성 공간이기도 하다. 전통시대에 있어서 결혼한 여성들의 관심사는 대체로 가문 또는 가정내의 세계에 집중된다. 이러한 현상은 현대에 와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크게 달라졌다고는 볼 수 없다. 이처럼 여성들에게 있어서 가문(가정)의 의미는 다분히 이중적이다. 즉 현실적으로는 여성 자신을 억압하는 공간이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의 능력이 무엇보다 강조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물론 그 능력은 여성 자신을 향해 發顯되는 것은 아니다.¹⁸⁾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규방의 여성들이 가부장제의 질서를 존속·유지하는 도구로서 스스로를 복무시킨다고 보는 시선¹⁹⁾ 또한 온당하지 못하다. 이처럼 규방은 여성들에게 二律背反의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규방에 거하는 규방 여성은 사대부 남성과 같은 양반 가문의 구성원이라는 점에서는 동질적이지만, 가문내의 권력관계 속에서는 철저히 타자화된 존재이다. 남성들은 자신의 능력을 닦아 사회에 진출하거나 또는 그

18) “문벌을 유지하는 기둥의 하나인 기둥의 하나인 ‘범절’ 또한 따지고 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여성의 솜씨와 노고에서 나오는 것이다. 문벌이 중시되는 사회에 있어서 여성의 존재와 역할은 결코 가볍게 취급할 수 없는 그런 것이었다.……남성의 ‘책을 읽고 뜻을 연구하는’ 학자적 생활은 여성의 현신적 노고에 의존했던 셈이다.” (임형택, 『17世紀 閨房小説의 成立과 〈信善感義錄〉』, 『동방학지』 57, 연세대 국학연구원, 1988.3. / 『고소설 연구 1』, 국문학연구총서 5, 태학사, 1997, pp.292~293).

19) 김진명, 『굴레 속의 韓國女性』(집문당, 1993), p.113.

것이 좌절되더라도 이를 해소할 만한 문화적 예술적 공간이 있었다. 그러나 여성들은 폐쇄된 규방 공간 속에서 자신의 의지를 억누를 수밖에 없었다. 남성들은 자연 속에서 詩作을 일삼는 風流的 삶을 누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酒色雜技에라도 몰두할 수 있었지만 여성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었다. 이 과정에서 여성들은 남성들이 공적 영역에서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적 영역에서 보조적 역할만을 수행했을 따름이다. 그러나 이들 규방 여성들은 소설 문화와 가사 문화에 깊숙이 편입됨으로써 능동적으로 국문 문화의 확산과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들 여성들의 손에서 배태된 국문장편소설과 규방가사 속에는 규방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생활세계가 매우 흥미롭게 그려져 있다.²⁰⁾ 규방 공간에서 실제로 살아 숨쉬는 여성들은 대동소이한 경험들을 수행하면서도 매우 다양한 시선과 태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이러한 규방 여성들의 다양한 시선들을 규방가사에 나타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²¹⁾

- 1) 여성이 남성을 바라보는 시각
: 남성비판, 남성선망의 양상으로 나타남.
- 2) 여성이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
: 서로의 관계에 따라 때로는 애정으로, 때로는 비판으로 표출.
- 3) 여성이 가족을 생각하는 태도
: 실감있는 가족애의 표현은 남성과 다른 여성의 정서를 표출.
- 4) 여성이 사회를 인식하는 태도
: 사적 문제와 연관되어 서술되는 경향이 많음.

20) 정창권, 「〈소현성록〉의 여성주의적 성격과 의의-장편 규방소설의 형성과 관련하여-」, 『고소설연구』 4(고소설학회, 1998.2). ; 백순철, 「규방가사의 작품세계와 사회적 성격」(고려대박사논문, 2001).

21) 주 텍스트는 권영철, 『규방가사 I』(정신문화연구원, 1979). ; 권영철, 『규방가사-신변탄식류』(효성여대출판부, 1985).

5) 남성이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

: 연민과 동정, 비판과 조소 등으로 나타남.

이는 규방가사의 향유에 관여하는 담당층들의 의식세계와 연관된다. 특히 화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에 따라서, 그의 행위와 생각도 다양하게 分岐되어 드러나게 된다. 그럴 경우 규방가사 내부에 형성된 여성의 모습 또한 다양하게 나타남다. 몇 가지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가부장적 남성사회 속에서 희생되어가는 여성

: 남성에 의한 여성억압, 남성 선망의 모습을 노정.

나) 남성사회의 이데올로기에 영향을 받아 이를 철저하게 내면화한 여성 : 여성에 의한 여성억압.

다) 남성사회의 규준으로부터 일탈해가는 여성

: 행동과 의식에서 반남성적 태도를 노정.

라) 여성의 권리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여성

: 집단으로 모이는 여성, 사회적 노동에 참여하는 여성 등.

마) 성, 출산과 양육, 여성간의 우애, 모성성, 여성의 몸 등 여성성을 소중히 인식하는 여성.

대략 규방가사에 나타난 여성의 모습은 위의 모습들로 설명이 가능할 듯하다. 여기서 여성들은 자신들의 문제와 상황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며 이를 표출한다. 규방가사의 내용 속에 다소 교훈적 요소가 보이더라도 여성들이 더 큰 공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규방가사 내부에 여성이 자신의 현실적 처지를 깨닫고 자아를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모습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²²⁾ 그렇다면 규방은 여성을 수동적으로 가두는 공간만이 아니라 고난의 경험을 통해 여성적 자의식의 표출을 가능케 하는 공간이기

22) 기존 연구에 나타나는 남성적인 시각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시각의 전환을 요청하는 일련의 연구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신은경, 「조선조 여성텍스트에 대한 페미니즘적 조명-내방가사를 중심으로」, 『석정이승옥선생화갑기념논총』, 1991) / (나정순, 「내방가사의 문학성과 여성 인식」, 『고전문학연구』 10, 1995.12).

도 하지 않을까.

㉑ 나난 본대 선아로서 상제께 득죄하고, 적강인간 하올 격의 예안짜 기남 촌내, 동방부즈 퇴계선조 계계승승 뒤를 이어, 참판판서 증조부임 명문화별 귀동여로, 시름 업시 즈랏드니 슈빅리맛 낙낙원지, 계발무려 편진다시 이 몸이 여기왔노, 시집사리 왔다 하니 죄명 업는 귀양인가, 스고무친 고독단신 이너 길이 어인 일고, 부춘산 업즈름이 간의대부 마다하고 칠이탄익 도라든가, 빅이 숙제 절계로서 슈양산을 차자왔노, 리티빅의 문장으로 강남풍월 츠자왔나, 왕상의 효심으로 빅리부미 하로왔나, 아니로시 아니로시 그런거시 아니로세, 무처무당 내일신이 죄력이 심중하여, 삼세의 임훈일코 조모의 약한마음, 우리형제 기라실적 타인십자 부러할가, 파려할가 만져보고 닷칠세라 조심하여, 이갓치 녀키시스 애중하고 사랑하여, 귀애하미 산두갓히 밍모지교 아닐런가, 효측은 다못하나 교훈도 만들시고, 효우지심 학중하고 일가친척 화목하며, 존비귀천 물론하고 천심주장 하랏드니, 악박한 이시상의 내마음을 뉘가알고, 인지중지 길어내스 니칠당년 우리빅씨, 군즈호구 짝이되어 봉화군 추양면디, 부귀겸전 슈복가에 오복겸전 누리시고, 경즈년 상원가절 이내몸이 십육세라, 명문화별 가려내니 선산희평 화려강산, 삼한갑축 전주최씨 인제선성 후에로서, 성덕여천 우리구고 태산갓치 **높은택**, 가리고 또가리여 명문화별 가려내야 독즈부가 되어서라, 따듯호신 조모엽홀 실은다시 물러서서, 식택사리 하여보니 성덕구고 식택이나 조심이야 업실손가, **동동축축** 공경이요 혼정신성 때를맞춰, 오난즘을 어이즈며 활발우슴 다우슬가, 봉계스 접빈기에 소임이 다스하니, 사랑은 깃흐시나 일신이 약약호고 서의하기 그지업다, 인물도 낮치설고 방언도 귀가설고, 산천도 내가아나 아난사람 뉘이스라, 십삼시 어린양반 부모안전 응석호고, 어리석기 그지업서 동서분간 어이알리 …… 나는후세 원정하여 인간 환생 하올적에, 진시의 미진인연 빅년동주 기약할때, 이몸이 남아대여 우리부모 귀동즈로, 슈복부귀 겸전하여 차심설원 하오리라, 청산귀로 하올적에 일남상주 효심으로, 명산대지 만흐나마 다란고대 못지말고, 동렬합장 경계경계 소원을 잊지마라, 일년일차 괴일이며 춘츄성모 잊지말고, 계계승승 즈손드리 파초선 일산더로, 분향지비 호올적에 혼빅이 명명하면 반가이 즐기리라, 심신이 들긏업서 **형설슈설** 한곡조에, 보시느니 웃지말고 능지소회 하여주소.23)

23) <리씨회심곡>(閩身, 1). (권영철, 『규방가사-신변탄식류』, 효성여대출판부, 1985).

여성들은 교육과 윤리, 직분에 있어서 남녀에 따라 철저히 이분화된 기준을 적용시키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표출한다. 인용된 작품에는 이처럼 여성들이 당대 현실에서 겪는 가부장제²⁴⁾의 여러 고난의 내용들이 나타난다. 昏定星辰, 奉祭祀, 接賓客 등 혼인한 여성으로서 수행해야 하는 소임은 끝이 없는 데다 낮설고 말도 설어 설움은 커져만 간다.²⁵⁾ 또한 남성을 선망하는 여성 의식 또한 노출된다. 작자의 만년에 표출되는 이러한 의식은 남성을 여성보다 우월하게 인식한다거나 여성을 비하하는 시각에서 표출된 것이 아니다. 즉 남성선망의 표현 이면에는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소외당한 오랜 역사적 배경이 자리하고 있다. 또한 이는 결핍된 자신의 삶을 완벽하게 보완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남성이 되어야만 가능하다는 여성들의 철저한 고민에서 나온 것이다. 위에 나타난 남성선망의 모티브는 공식적 사회생활이 원천봉쇄되는 억압적 현실로부터 탈출을 꿈꾸는 여성들의 욕망이 표출된 것이다. 자신의 성 역할과 인간으로서의 보편적인 감정 사이에서 심한 갈등을 겪던 여성은 이제 문제해결의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남성선망의 모티브는 결국 남성으로 태어나는 것 이외의 모든 해결의 통로를 차단한 현실에 대한 강한 비판과 부정의 반이인 것이다. 따라서 기존에 남성선망이 여성의 현실인식의 한계이거나 소극적 문제해결로서 해석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고 생각된다. 이외에도 공적인 삶의 실현이 좌절된 여성들이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그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여성들간에 강한 연대의식을 형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²⁶⁾ 이러한 여성의 온정적 태도는 친족애 및 가족애의

24) 실비아 월비 지음, 유희정 옮김, 『가부장제 이론』(이화여대출판부, 1996), pp.40~43.

25) <여자가라>(閨身, 15)를 보면 화자는 여자의 도리인 정절, 효도, 우애 등에 신경 써야 하는 정신적 고통과 봉계사접빈객, 방직, 부엌일, 의복손질 등에 신경 써야 하는 육체적 고통을 절실하게 토로하고 있다. 권영철, 『규방가사-신변탄식류』(효성여대출판부, 1985).

26) 실패기 여즈로다 다정다정 우리봉우 / 봉우손길 후려잡고 만단설히 하울적익 /

강조를 통해 자신의 존재적 근원을 확인코자 하는 여성 특유의 자아의식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처럼 규방 공간은 여성들에게 일상적 고난이 지루하게 지속되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한편 여성으로서 가지게 되는 다양한 의식세계가 무르녹아 성숙되는 공간이기도 하다. 특히 규방가사 텍스트에는 오랜 규방생활을 통해 스스로 자신의 삶을 규정하고 표현하게 된 여성들의 삶의 실체가 온전히 그려져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여성들에게 규방은 여성으로서 다양한 경험과 의식이 형성되는 공간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3. 외부세계와의 교류 : 독서와 여행

규방이라는 공간은 여성들에게는 외부와 차단된 일상적 경험세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성들이 규방의 외부와 철저히 격절된 삶을 산 것은 아니다. 특히 여성들이 외부세계와 교류하는 방식으로 주로 택한 행위로는 독서와 여행이 가장 대표적이다. 여성들은 독서와 여행을 통해 규방의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비밀상적 경험세계의 실상을 체험하게 된다. 전통적으로 사대부 남성들이 여성들에게 허여하는 텍스트는 윤리적인 덕목이 강조되는 교훈서나 경전인 경우가 많지만,²⁷⁾ 여성들은 자신들의 쾌락과 심미

네뭇오고 너울적의 너뭇오고 () / 심심규중 들어안즈 봉우싱각 간절크든 / 충천의 저달보고 피츠간 생각흐시 / 심중이 인난말을 다흐준이 즈연이 더디노라 / 이만숫 지기흥필 혼즈두고 심심할쳐 보시노라. <5-5. 화전가라>, 권영철 편, 『閨房歌辭』 I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79).

27) “부인들은 마땅히 書史와 論語·毛詩·小學書·女四書를 대략 읽어 그 뜻을 통하고 百家의 姓과 先世의 系譜, 歷代國號, 聖賢의 이름을 알면 족하다. 부질없이 詩詞를 지어서 바깥에 전파되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婦人이 當略讀書·史·論語·毛詩·小學書·女四書하여 通其義하고 識百家姓과 先世譜系와 歷代國號

적 욕구를 자극하는 소설과 같은 독서물을 더욱 애호했던 것으로 보인다.

① 효종 7년 선생 8세(1656년)……글을 읽는 여가에 꼭 누이들에게 여사교 답을 읽어 달라고 청하여 듣곤 했다. 누이들이 귀찮고 괴롭게 여긴 나머지 스스로 읽지 못함을 책망하자 분연히 반절을 써 달라고 했다. 그것을 가지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꼭 닫고 익히더니 만나절만에 나왔는데, 환히 알아 막힘이 없었다.²⁸⁾

② 선생이 언문으로 지은 것은 대개 여항의 부녀자들로 하여금 읽고 외워 감동케 하기 위함이니, 진실로 우연히 지은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제자백가서와 동렬에 둘 방도가 없어, 내가 일찍이 병통으로 여겼다.²⁹⁾

③ 세상에 소설이라고 하는 것들은 모두 그 말이 卑俚하고 사견 또한 荒誕해서 奇談과 詭譎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그 가운데 『사씨남정기』와 『창선감의록』 등 두세 편은 사람들로 하여금 감발케 하는 깊은 뜻이 있다. …… 이 책을 지음이 비록 허구에서 나왔으나 또한 福善禍淫의 이치가 있으니…… 바라건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게 하고 집안의 부녀자나 어린이들로 하여금 한문이 나 한글로 읽게 한다면 교육의 한 방편에 도움이 될 것이다.³⁰⁾

위의 인용문들을 살펴보면 여성들의 독서 문화가 상당한 수준이어서 남성들이 이를 교육의 수단으로 삼기도 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주요 독서물은 국문으로 된 소설이나 이야기책이 많은데, 이러한 책을 읽는 여성들의 향유의식 속에는 흥미를 통한 일상으로부터의 탈출을 꿈꾸는 자의식이 자리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은 가사 독서의 양상에서도

와 聖賢名字而已 不可浪作詩詞하여 傳播外間이니라.” 이덕무, 『士小節』 下卷 婦儀 事物 翰林書林, p.74. 임형택, 「17世紀 閩房小說의 成立과 〈倡善感義錄〉」, 『동방학지』 57(연세대 국학연구원, 1988.3). / 『고소설 연구 1』, 국문학연구총서 5(태학사, 1997), p.293에서 재인용.

28) 「滄溪先生年譜」, 임형택, 앞의 논문, p.118에서 재인용.

29) 金春澤, 『翻諺南征記』 序.

30) 晚窩翁, 「一樂亭記」 序.

나타난다.

신스구월초구일(辛巳九月初九日)과 고이 필서(筆書) 하나 본전즈긔고 무
식흥기 뜻아디 못흥무로 말이되지 아니하나 두고 심심홀적 파적(破寂)이나
흥오리라³¹⁾

귀귀한 흥필이 남스럽고 익들이들, 만드러 어마 형님너나 보실가, 탄식탄식
나의심사 세필적는 흥흥원원³²⁾

시세 무진 스월 염 칠일 필서 묵과 붓과 눈어두어 희괴³³⁾

치량흥 마음으로 자탄가 지엇노니 무심하게 보지마옵시사³⁴⁾

위의 인용문들은 가사의 필사 및 작자 후기이다. 필사자 또는 작자인 여
성은 필사 및 창작의 동기를 간략히 밝히고 있다. 가사를 필사해 두는 이
유가 적적함을 해소하는 데에 있다거나, 글씨나 표현이 대단치 않다고 겸
양의 표현을 하거나 하는 데서 필사를 통한 가사의 향유가 이제 여성들에
게는 아주 흔하고 일상적인 문학생활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가사의
말미를 장식하는 작자 후기들에서 음성적 향유가 아닌 독서 형태의 향유를
전제로 작품의 창작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독서
문화 속에서 여성들은 일방적으로 흥미와 쾌락만을 좇는 것이 아니라 사람
살이의 도리에 대해 부단한 성찰을 보여주기도 한다.³⁵⁾ 또한 소설과 가사

31) 작품제목 미상의 필사후기, 류연석, 『海南尹氏宗家所藏 閩房歌辭 研究』, 『고서
가연구』 11(한국고서가문학회, 2003.2), p.92.

32) 2. 여자탄(권영철, 『규방가사-신변탄식류』, 효성여대출판부, 1985).

33) 3. 녀즈탄(권영철, 『규방가사-신변탄식류』, 효성여대출판부, 1985).

34) 4. 여자자탄가(권영철, 『규방가사-신변탄식류』, 효성여대출판부, 1985).

35) 6세에 우리 글인 언문(諺文)을 통하고 7~8세에는 어른을 대신하여 편지를 썼으
니, 안부를 묻는 말 이외에도 정을 서술하고 일을 논하는 내용에도 각각 격에 맞
게 할 수 있었다. 여자의 기능인 길쌈이나 바느질에도 정교한 솜씨로 넉넉하고 민

를 읽고 傳寫하는 경험들을 통해 여성들은 수동적인 독자나 필사자의 위치에서 능동적인 작자로 전환하기도 한다. 은촌 조애영의 경우도 아주 어려서부터의 가사 체험이 뛰어난 가사 작자로서 성장하는 기반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³⁶⁾

독서 외에 여성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세계에 대한 인식의 틀을 확장하는 경험으로서 여행을 들 수 있다. 여행은 인간에게 있어서 자기 인식이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데 주요한 동기를 유발하는 문화적 경험이다. 장정수는 “여행은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계에 대한 인식과 발견의 기회를 제공한다. 따라서 기행 경험을 창작의 동인으로 삼고 있는 기행

첩하여 남보다 우월하게 해줬다.……할아버님은 어머님의 사람됨을 무겁게 여기시고 일의 크고 작음을 구별하지 않고 어머니님과 의논하지 않는 일이 없었으며, 벼슬살이의 나아가고 물러남과 같은 부인으로서는 알 바가 아닌 일에 이르기까지도 반드시 상의하시면서 물으셨다.……우리나라 풍속에는 평소에는 부녀자들에게 글을 배우게 하지 않았다. 그러한 이유로 어머님은 비록 문자를 배우고 익히지는 못하셨지만 총명함이 남보다 뛰어나셨고, 어려서부터 옛날의 사건을 관찰하기 좋아하셨다. 중국의 경우는 상고 시대부터 명(明)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경우는 고려 말엽에서부터 근세에 이르기까지 나라의 다스려짐과 어지러웠음, 인물의 어질과 간사함에 대하여 쪽 꺾어 알지 못함이 없었다. 심지어는 언문소설에 있어서도 무려 수백 가지의 소설을 한 번 읽고서는 기억하셔 종신토록 잊지 않으셨다. 늘그막에는 항상 “소실가들은 모두 저짓으로 이야기를 민들이었으니 히나도 참된 것이 없으며, 또한 사람의 심술이 빠져들기에 충분하니 보아서는 안된다.”라고 말씀하셨다. <목숨이란 약으로 연장할 수 없다(先妣恭人李氏行狀)>-공인 전주 이씨(1694~1767), 안정복·박석무 편역 해설, 『나의 어머니, 조선의 어머니』(현대실학사, 1998), p.49, p.50, p.52.

- 36) 1. 화전가 : “이 가사는 우리문중 딸내들이 언문글씨 배울적에 부르고 받아쓰는 글이다.”
 3. 애련가 : “이 가사는 우리어머님 책설기에서 발견하였으나 해방 후 수차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었음을 작자의 딸로써 다시 엮어듬 작자는 李退溪先生 宗派 딸내로서 안내지방에서 유명한 문장이요 명필이었다”
 4. 산촌향가 : “이 글을 엮어서 아버님께 올렸더니 대단히 기뻐하시며 딸에게도 경성유학길에 오르게 하셨다.”
 5. 일월산가 : “을축년 봄날에 나물뜯어 이고 와서 조국이 그림기에 이 글을 엮어둔다. 십오세기절치녀작”
 조애영, 『은촌내방가사집』(금강출판사, 1971).

가사는, 작가가 발견한 새로운 세상과 세계에 대한 인식을 담고 있다”³⁷⁾라고 설명한다. 특히 여성들에게 있어서 여행 체험은 결핍된 문화적 욕구를 해소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가다듬는 주요한 계기가 되기도 한다.

규방가사의 작품중 상당수는 여성들만의 놀이 모임에서 향유되고 창작된다. 이는 작품의 서두에서 일반적으로 同類나 宗班의 무리들을 부르면서 노래를 시작하는 것이나, 작품 중간에도 빈번히 봉우들을 부르는 표현이 들어가고, 작품 말미에 독자에 대한 당부나 말 등이 거의 들어가는 것 등을 볼 때 알 수 있다. 사대부가사에서 ‘어와 벗님네야’라고 불특정한 청자를 설정하는 관습적 표현이 傳言의 효과를 기대하는 문학적 수사라면, 규방가사의 그것은 직접적인 창작환경에서 비롯되는 표현이라는 점이 그질을 달리한다고 할 수 있다.

여행은 또한 작자의 심미적 욕구를 자극하기도 한다. 여행이라는 행위 자체가 그 자체로 자족적 완결성을 가지는 것이긴 하지만, 전통시대 여성들에겐 여행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경우는 드물었고, 대체로 자식이나 남편, 또는 가문내의 일원을 만나기 위해 즉 가문내의 직임을 수행하기 위해 여행이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여행 모티브 규방가사에서 가문의식이 강하게 표출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창작 동기에 근거한다.³⁸⁾ 여기서 가문의식은 여행 모티브가 아니더라도 규방가사에 흔히 나타나며, 정서적 해방감을 여행을 모티브로 한 가사에 흔히 나타나는 것이다. 〈錦行日記〉의 작자인 은진송씨가 여행에서 돌아온 감흥을 서술한 마지막 대목을 보자.

37) 장정수, 「금강산 기행가사의 전개양상 연구」(고려대 박사논문, 2001).

38) 김수경, 「〈부여노정기〉-최초의 기행소재 규방가사」, 『규방가사의 작품세계와 미학』(역락, 2002).

유정선, 「〈錦行日記〉에 나타난 기행체험의 의미」, 『규방가사의 작품세계와 미학』(역락, 2002).

만심이 혼흔흔여 석식을 도히 먹고, 당창흔여 안져시니 어제 진 달 도다 온다. 월명성희 뚝은 경의 오죽이 남비하니, 비교하기 부당하나 조맹덕의 시를 외와, 머음을 쾌창하고 양가편친 친필하셔, 양슈로 받드러서 중심이 든든하여, 지삼 보고 반가오나 친안이 의희흔 듯, 스친지회 일양이니 하일하시 승당흔여, 슬하의 현비하고 여전이 즐겨 불가, 하늘님그 축슈하고 신명이 술피오셔, 존당 연슈 만만세로 남산슈로 축원하고, 우리 편친 무강지슈 누만세나 누리쇼셔, 나의 소원 무궁하니 천우신조 호오시고, 쇼망이 여합흔여 평성 쾌락히리라.

인용된 부분은 작품의 최종 결말 부분에 해당한다. 작자는 친모와 시모의 편지를 받고 비로소 근심을 덜고 여유를 되찾고, 두 분의 장수와 건강을 축원하는 것으로 작품을 끝맺고 있다. 여기서 작자는 저녁을 먹고 창가에 앉아 玩月하며 조맹덕의 시를 한가롭게 외우고 있는데, 이는 여행 체험이 여성에게 새로운 정서적·미적 감흥을 불러 일으키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처럼 비록 간헐적이고 일시적으로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여성들은 독서와 여행을 통해 규방의 외부세계와 교류한다. 이러한 여성들의 체험은 규방 공간에 국한되어 있던 여성들의 언어와 미감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게 되는데, 이러한 경험들은 규방 여성들의 문학세계를 보다 다양하게 구성하는 기반이 되기도 한다.

4. 맺음말

본고에서는 조선조 여성들의 생애에 대한 기록과 규방가사 등을 통해 규방 공간에서 여성들이 문학능력을 형성,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을 밝히는데 주목하였다. 여성의 실존적 삶과 문화에 대해 새로운 시각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담론은 이미 새로운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끊임없는 논

의가 지속되는 이유는 그만큼 새로운 견해가 의미 있는 지위를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다만 규방의 여성이 향유하고 생산하는 문학에 대한 가치 또는 가치성의 판단에 있어서 그 문화적 기반에 이해는 여성문학에 대한 좀더 진정성 있는 접근을 가능케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규방이라는 공간은 그만큼 제한된 의미를 넘어서서 많은 가능성을 안고 있는 공간이다. 이 글은 이런 斷想들을 좀더 체계화시켜 보려는 의도에서 시도되었다. 그러나 좀더 확인하고 탐구할 대상이 많이 남아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보다 다양한 검증을 통해 좀더 풍부한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권영철, 『규방가사 I』(정신문화연구원, 1979).
 권영철, 『규방가사-신변탄식류』(효성여대출판부, 1985).
 金春澤, 『翻諺南征記』序.
 晚窩翁, 「一樂亭記」序.
 박석무 편역 해설, 『나의 어머니, 조선의 어머니』(현대실학사, 1998), pp.112~248.
 조애영, 『은촌내방가사집』(금강출판사, 1971), pp.10~400.
 권영철, 『규방가사연구』(이우출판사, 1980), pp.5~327.
 김진명, 『굴레 속의 韓國女性』(집문당, 1993), pp.83~113.
 노대규, 『한국어의 입말과 글말』(국학자료원, 1996), pp.36~38.
 실비아 윌비 지음, 유희정 옮김, 『가부장제 이론』(이화여대출판부, 1996), pp.40~43.
 김수경, 「〈부여노정기〉-최초의 기행소재 규방가사」, 『규방가사의 작품세계와 미학』(역락, 2002), pp.97~115.
 나정순, 「내방가사의 문학성과 여성 인식」, 『고전문학연구』 10(1995.12).
 류연석, 「海南尹氏宗家所藏 閨房歌辭 研究」, 『고시가연구』 11(한국고시가문학회, 2003.2), pp.89~120.

- 박영희, 「장편가문소설의 향유집단 연구」, 한국고전문학회 편, 『문학과 사회집단』 (집문당, 1995), pp.319~361.
- 백순철, 「규방가사의 작품세계와 사회적 성격」(고려대박사논문, 2001.2).
- 유정선, 「〈錦行日記〉에 나타난 기행체험의 의미」, 『규방가사의 작품세계와 미학』 (역락, 2002), pp.195~219.
- 임형택, 「17世紀 閨房小説의 成立과 〈倡善感義錄〉」, 『동방학지』 57(연세대 국학연구원, 1988.3), pp.103~172.
- 장정수, 「금강산 기행가사의 전개양상 연구」(고려대 박사논문, 2001).
- 정창권, 「〈소현성록〉의 여성주의적 성격과 의의-장편 규방소설의 형성과 관련하여-」, 『고소설연구』 4(고소설학회, 1998.2), pp.293~327.

Abstract

**A Study on the creation and enjoyment of literature in
Kyubang(Women's living room)**

Paik, Sun-Chul

This study was prompted by the necessity that the creation and enjoyment of literature in Kyubang should be researched in a current study.

The research implications of This study run as follows :

First, it might be understood how the feudal women had learned the literal capability of the Chinese classics and the Korean language.

Second, The feudal women expressed the living style and consciousness in kyubang(Women's living room) through the kyubang novel and the kyubanggasa.

Third, The reading culture and the trip experience of the feudal women had influenced on the living style and consciousness in kyubang(Women's living room). We understand desires of enjoyment and self-communion through the reading culture of the feudal women. Besides, we understand new perception and aesthetic desire through the trip experience of the feudal women.

To conclude, The feudal women developed the independent literature culture in kyubang(Women's living room).

key words : kyubang, kyubanggasa, literacy, the reading culture, the feminine consciousness, the trip experience, oracy.

■본 논문은 9월 30일 투고되어 10월 20일에 심사가 완료되었으며 11월 10일 게재가 확정되었음.

